

우리는 우리의 사상을 만들고 있는가

김동춘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연구원 · 사회학박사

90년대의 '개인주의' 는 사상의 무덤이다.

포스트주의적인 담론은 80년대의 맑스주의나 민족해방론을 대체하는 사상이라기보다는 사상의 폐허를 확인하는 나팔소리다. 우리는 이제 모든 지식을 수입하고, 책방의 책 대부분은 번역본이다.

80년대와 90년대를 관통하는 사상의 부재, 사상적 고민 수준의 천박함은 이렇게 다가온다.

강의 하는 80년대, 90년대의 토폴책

80년대와 90년대의 사상적 지평과 그 차이를 비교하라는 『길』의 청탁을 받고 나는 어떻게 80년대 중반 이후 우리의 사상적, 인식적 지평의 변화 혹은 그 굴절과정을 잘 정리할 수 있겠는가 다시금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이 시점에 다시 맑스주의나 주체사상의 '때늦은 등장과 때이른 쇠퇴' 라는 익숙한 지적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90년대 이후 사상적 지평의 변화 실상을 잘 요약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되었다. 우선 80년대의 상황을 하나의 이상적인 것으로 놓고 90년대 이후의 변화된 분위기를 비판해서는 안되겠다고 다짐해 본다. 즉 80년대와 90년대 중반인 지금까지 전 시기를 흐르는 공통의 특징에 대해서도 좀더 강조를 해야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10년을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80년대를 되돌아보고, 80년대의 정신으로 지금을 생각해보니 우리에게 10년이란 엄청나게 긴 세월이었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된다. 80년대에 전개되었던 각종의 사상적 논쟁을 지금의 학생들

에게 '강의' 를 통해 설명해야 하는 나의 요즘의 행동보다 90년대 중반의 오늘의 모습과 그 동안의 변화의 폭을 더 잘 보여주는 예는 없을 것이다.

강의실에서 80년대는 이미 역사가 되어버렸고, 나는 내 이전의 세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젊은이들의 진보성과 무모함을 비판하는 입장에 선 것이 아니라, 거꾸로 과거 학생들의 고민과 행동들을 선배들을 대신하여 전달하고, 강의실 구석에서 토폴책을 뒤적이는 학생들을 한심하게 생각하면서 이들의 안일함과 무지, 현실타협성을 꾸짖는 이상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90년대, 원자화된 자신만의 세계

80년대와 90년대를 비교하면서 나는 토크빌(Tocqueville)의 탁월한 지적을 다시금 떠올린다. 즉 90년대 들어 우리 사회는 토크빌이 지적한 바 사회의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되어 자신만의 원자화된 세계를 구축하는 개인주의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개인주의를 인간의 실체적인 성격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초월적인 자질을 상실한 상태라고 보았다. 즉 개인주의는 개인을 세계로부터 단절시키고, 감각적이고 촉각적인 면으로만 격화된 세계에 처하게 된 상황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개인주의는 물질적인 안락을 위한 정열만을 자극하고 정신의 욕구를 회색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적인 영역에 침잠하여 정치적인 혹은 공공의 사안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고, 자신의 사사화(privatized)된 세계 속에 안주하도록 만든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간은 더이상 초월적인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며, 그것을 열렬히 원하거나 그것을 향해 투쟁하지도 않게 된다.

토크빌의 이러한 사고는 마르크스의 소외론과도 통하는 바가 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인간이 스스로를 개인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은 비정상적인, 소외된 상황이며, 그것은 자신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가운데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을 확신하게 되고 또 인간다움을 맛보게 된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은 기실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을 개별화시키는 기존의 지배질서나 문화에 동조하는 것이다. 스스로 만족하는 상황, 혼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은 일정한 재산과 교육과 거주지를 전제로 한다. 그는 더이상 자신의 욕구를 사회와 정치에 향해 발산하지 않으며 오로지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 독재정권의 등장이나 비인간적인 사태는 그를 흥분시키지 않는다. 자신과 무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말하는 소외된 상황, 병적인 상황이다.

‘비개인주의’와 개인주의 사이에 놓인 10년

나는 도어(Ronald Dore)가 물었던 “21세기는 개인주의의 시대가 될 것인가?”에 대해 자신있게 답할 자신은 없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과 오늘의 세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인주의의 시대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개인주의는 분명히 과거와 같은 차원의 정치, 경제, 사회 변혁의 방향과 전망을 담고 있는 사회사상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사로잡고 있는 가치체계 일반을 사상으로 본다면, 90년대의 개

인주의는 분명히 하나의 사상이다.

90년대와 80년대의 가장 큰 차이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진자의 의미의 사상’의 차이라기보다는, 개인주의와 비개인주의, 즉 모든 형태의 초월주의를 거부하는 사고체계와 인간의 초월적 본질을 인정하고 유토피아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체계의 차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80년대의 맑스주의나 주체사상, 각종의 민주주의 사상은 모두 초월적 사상의 계보에 있는 것이며, 90년대 이후는 이 모든 것의 쇠퇴로 특징지워진다. 즉 초월의 신화, 유토피아의 기대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초월의 신화가 무너진 사회에 변화를 향한 기대나 열정이 있을 수 없고, 그것을 향한 진지한 토론이나 집단적 의지의 결집, 자기회생의 노력이 있을 수 없다.

즉 우리는 80년대에 대해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는 맑스주의나 주체사상 등 특정의 변혁이념이 젊은이들을 사로잡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당시의 많은 젊은이들은 그때 한국사회의 전면적인 변혁을 기대했고, 그것을 위해 그들 중 누구는 목숨까지 바쳤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90년대 중반에 들어선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80년대의 이론적, 사상적 대립이라는 것도 사실은 더 많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그때 사상을 말했던 사람은 모두가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었고, 자신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 모두를 위한 것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다.

80년대, 이념과 ‘공동체’의 시대

원래 맑스주의와 민족주의는 사실상 다른 점보다 같은 점을 더 많이 갖고 있다. 그것은 이들 사상이 유토피아의 희망을 내부에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맑스주의와 민족주의의 힘은 그것의 실용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전면적으로 넘어서려는 변혁성에 있었다. 맑스주의의 힘은 그것이 가르치는 자본주의 정치경제에 대한 해부의 논리에 있다기보다는 자본주의적 시장질서의 전면적인 극복의 전망이었다고 볼 수 있다. 민족주의는 맑스주의보다 더욱 더 종교적 열정과 맞닿아 있다. 20세기 들어서 민족주의는 맑스주의보다 훨씬 강렬한 힘을 발휘하였는데, 그것은 민족주의가 바로 억압의 상황을 돌파하는 무



80년대는 이념과 '공동체'의 시대였다. 90년대 개인주의는 비판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순응주의다.



기를 제공해주었으며 민족해방과 민족공동체 건설이라는 유토피아를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80년대의 맑스주의와 민족주의의 부활은 바로 80년 '광주'를 누르고 등장한 정치적 억압과 도덕성을 상실한 지배 집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부의 몸짓이었으며, 40년의 분단질서하에서 형성된 모든 부정의, 부도덕, 비민주성, 친의세성을 일거에 삼제(芟除)해야 한다는 열정의 표현이었다.

즉 맑스주의자를 자처한 사람이나 민족해방노선을 지지한다고 자처하는 사람이나 이들의 정열의 근원은 구체적인 사상적 내용이나 정책적인 대안들에 대한 지지에 있었다기보다는 민주주의 혹은 현실 변혁의 욕구에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근본적인 변혁을 무시하는 모든 형태의 타협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사고, 공동의 목적보다는 개인의 입신을 고려하는 모든 형태의 자기중심주의적인 태도가 배격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자신의 이해관계나 자신의 관심을 먼저 고려하는 태도는 당시의 정서 속에서는 매우 어색한 것이었다.

80년대는 확실히 이념의 시대였다. 80년대와 90년대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개성과 자신의 삶을 강조하는 오늘의 세대는 이제 '우리 모두'의 목표를 부르짖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한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일종의 강요 무언의 폭력의 행사가 아닌 가 향변하고 있다. 이제 '내가 남에게 바랄 것도 없고, 남

에게 강요하지도 않는' 철저한 개인주의만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 그리하여 술 먹으러 가자는 사람도 별로 없고, 술 먹자고 해도 따라오는 사람도 없으며, 마지못해 따라오더라도 토론하지는 않고, 그냥 아무런 대화 없이 노래방에서 소리지르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사상의 폐허에서 울리는 포스트주의의 나팔소리

초월성에 대한 기대가 없는 곳에서는 비판이 없고, 저항이 없고, 기득권자를 전율케 하는 강력한 문제제기가 없어지기 쉽다. 따라서 90년대 들어 이제는 전근대적 순응주의를 방불케 하는 새로운 형태의 순응주의가 부활하였다. 90년대 세대는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는 말하고 있으나 정작 주장을 펴야 할 곳에서는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모험과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일에 뛰어들지는 못한다. 이미 약간 가진 것이 있으므로, 그렇게 절실하게 어려운 상황에 부딪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정치적 현실, 사상 일반에 대한 토론은 더욱 더 드물어졌다. 주장과 입장을 제시하는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고, 학계에 진입하는 20대말 30대 초반의 신진학자들도 생존에 필요한 무미건조한 논문들만을 써낼 따름이지 선배들을 비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늘날 대학생들이 논하는 '전북의 정치학'이니 '성담론'이니 하는 언뜻 보기에 과격한 구호가 전혀 전복적이지도 파괴적이지

지도 않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기실은 이들의 주장이나 이론이 기존의 상품화된 지배질서에 전면적으로 도전하지 않으며, 또 행동으로 그것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즉 한국자본주의는 끄떡없이 존속하면서 번창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요란한 구호들을 자신의 생명력을 보강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개인주의는 사상의 무덤이다. 포스트주의적인 답론은 일견 우리가 귀 기울일 만한 내용도 갖고 있으나, 그것은 80년대의 맑스주의나 민족해방론을 대체하는 사상이라기보다는 사상의 폐허를 확인시켜주는 나팔소리처럼 들린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우리를 행동하게 해주며, 우리의 가치관과 현실관을 새롭게 정립시켜주는 힘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내세울 만한 80년대의 사상가는 있는가

그러나 여기서 주의를 기울일 대목이 있다. 과연 80년대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하나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지표로 삼고서 행동했는가 하는 점이다. 필자의 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특정한 변혁사상을 받아들여 행동에 옮긴 사람은 당시의 젊은이들 중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리고 행동에 옮긴 젊은이들도 그러한 사상을 진정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는 데 굳건한 정신적 기초로 삼고 이론적 지주로 삼은 사람은 매우 드물었다.

80년대의 열정은 그 사상적 깊이보다는 오히려 분위기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것은 90년대 들어서 왜 그렇게 열렬했던 맑스주의자들이나 민족주의자들이 그렇게 갑자기 자신의 입장을 바꾸었는가를 설명해준다. 즉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렇게 쉽게 버릴 사상에 왜 그렇게 몰두하고 야단스럽게 주장을 폈는가 하는 의문을 던진다.

우리는 작고한 연세대 홍이섭(洪以燮) 교수가 이미 1960년대에 했던 말을 떠올리게 된다. 그는 근대 이후 한국에서는 외래 사상이 이식되어 그 자체가 성숙한 기반을 지니지 못했고, 하나의 새로운 사상으로 구조화되지 못했던 점을 한탄하였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지식인은 서구의 자유주의 정신에 바탕을 둔 방관자적 보헤미안형과 아카데미선에 의한 철저한 비판 없이 실천에 성

급하게 수용한 변혁적 맑스주의 사상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60년대까지 진행돼왔다고 보았다.

이러한 홍교수의 지적을 참고하진 못했지만, 필자도 80년대의 맑스주의를 정리하면서 이와 비슷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즉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자유주의적 지식인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장악해왔고, 그를 비판하는 맑스주의는 사상적 내용보다는 실천활동의 시급성만 강조하면서, 현실의 근본적인 변혁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불행한 것은 홍교수가 이러한 지적을 한 지 3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그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가 또 강조했듯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어떠한 근대적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유교적, 가족주의적 가치라는 슬픈 사실이다. 따라서 그 많은 외래 사상이 수입되고 변역되었지만, 우리가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내용이 있는가를 외국인들이 묻는다면 우리는 별로 할 말이 없다.

80년대 한국의 맑스주의는 맑스주의를 80년대라는 한국의 상황에 과연 얼마만큼이나 창조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우리의 것으로 소화했는가? 우리가 내세울 만한 80년대의 사상가는 과연 있는가?

80년대와 90년대를 관통하는 '사상의 부재'

그러나 사상적 내용과 깊이의 부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상적 한계는 실천의 한계, 즉 멀리 보는 끈기있는 실천을 낳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우리 사회에 자유주의자임을 자처하는 지식인이 많지만 자유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침해하는 각종의 법, 제도를 고치기 위해 팔 걷어붙이고 희생을 마다않고 노력하는 사람 보기 어렵다. 맑스주의자임을 자처하는 많은 지식인들이 있건만, 한국의 열악한 사업장의 노동자나 한국 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계급적, 민족적 착취에 항거하는 논문이나 평론을 즐기차게 쓰면서, 또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우리는 자신의 소박한 민주주의 사상이나 공생의 사상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한국의 인권문제를 고발하고, 김지하의 구명운동에 앞장섰던 일본의 작가들 정도의 실천을 한 사람도 별로 찾아

보기 어렵다.

물론 실천활동에 압장서는 용기있는 지식인이 우리나라에는 많다. 그러나 그것은 깊은 사상에 바탕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은 한계를 갖는다. 이 점에서 명색이 학문활동을 한다고 자처하는 필자도 크게 부끄러움을 느낀다.

90년대는 80년대와 매우 다르다. 그러나 그 기저를 살펴보면 별로 다른 것이 없다. 90년대는 이미 80년대에 예비되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근대사 과정에서 이미 예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90년대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모든 유토피아사상의 몰락의 시기임에 틀림없지만, 한국에서는 그것이 더욱 더 폐허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우리는 80년대에 그렇게 조급하게 떠들지 말았어야 했다. 마찬가지로 90년대 들어서 갑자기 실망할 일도 아니었으며, 나는 실망했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면서 실망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할 일도 아니었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질적인 측면은 별로 변한 것이 없다. 사회적 민주화가 별로 진척된 것도 아니고, 부당한 인권침해가 사라진 것도 아니며, 기업활동이 투명하고 합리화된 것도 아니다. 한국자본주의의 논리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신영역은 왜 그리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가? 왜 그리 달라졌는가?

만약 토대분석만이 한국자본주의 분석작업의 처음과 끝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문화자본의 역할과 문화를 통한 지배가 우리에게 좀더 중요해졌다면, 토대분석과 더불어 문화분석을 병행하면 된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 이제는 토대분석을 하는 사람을 거의 찾을 수 없게 된 것은 물론, 새롭게 등장하는 영역으로 간주되는 문화분석을 하는 사람 역시 많지 않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지식을 이제 수입하고 있다. 책방에 진열된 책 대부분은 번역본이다. 국내의 필자들에게 의해 집필된 책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미국서 곧 출간된 책이, 심지어는 출간과 동시에 곧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번역되어 나온다. 80년대와 90년대를 관통하는 우리의 사상의 부재, 사상적 고민 수준의 천박함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

사상은 역사에서 나온다

결국 앞의 이야기로 되돌아가면 나는 그래도 80년대를 소중하게 여긴다. 초월주의는 구시대의 유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개인주의는 새로운 소의를 낳고, 소의는 초월에 대한 기대를 장차 배태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 희망을 가져도 좋고, 또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80년대의 열정은 살아숨쉬면서 우리 사회를 바로잡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사상으로 구체화될 때 물질적인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새로운 사상의 구체화는 80년대에 대한 정당한 극복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80년대의 극복은 90년대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다. 그리고 80년대의 극복의 주체가 80년대 세대만이 되어서도 안된다. 90년대의 세대도 여기에 중요한 주체로 등장하여야 한다. 90년대 세대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제 지난 수십년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는 시작 단계에 있다. 그런데 시작은 과거에 대한 정당한 평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올바른 출발을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냉정한 정리작업이 요구된다. 말하자면 근대의 과정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마구 사용했던 개념이나 이론들을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근대사와 근대 이후의 선각자들의 운동노선과 사상으로부터 일단 배워야 한다. 그들로부터 우선 배우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사상은 역사에서 나온다. 서구의 철학이론을 아무리 철저히 학습해도, 그것에 그친다면 모조품만을 생산해낼 따름이다. ◊

김동춘은 1959년생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의 박사학위논문은 보완한 「한국사회 노동자연구」 등의 저서와 편역서 「한국현대사연구」를 냈고, 지금은 강의와 함께 참여연대의 참여사회연구소 연구기획실장으로 일하고 있다.